

눈사랑한길

2020년(통권68호) | 발행인_정규형 / 편집인_손준웅 / 발행_기획실 / 등록번호 인천바01043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5(부평동)한길안과병원 / TEL_032.503.3322 / FAX_032.503.0801 /
디자인_(주)꽃을담다(02.325.9640)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2020 spring _ 068

NEWS LETTER HANGIL

BRIEF HISTORY

2019

2019.03 • 메디컬코리아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표창 수상

2019.05 • 대한안과전문병원회

2019.06 • 병원급 최초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2019.07 • 인천시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관' 선정

2019.08 • 2회 연속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전국 2곳, 인천 유일)

2019.10 • 제14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한길재단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참여
(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2019.11 • 대한안과전문병원회
2019 1차 세미나 참석

2019.12 • IMTJ SUMMIT MEDICAL TRAVEL AWARDS 2019
'올해의 국제안과병원' 수상(국내 최초, 유일)
• 박종민 국제진료팀장 '인천광역시장 표창' 수상
• 외래환자 21만 명 & 백내장 수술 6,000례 달성



한길안과병원은 정부의 엄격한 3번의 검증을 3번 다 통과한 명품 안과전문병원입니다

● 황금돼지의 해였던 2019년은 우리 병원도 복을 듬뿍 받은 한 해였습니다. 1년 동안 21만 명이 넘는 분들이 믿고 찾 아주셨으며, 연간 백내장 수술 6,000례를 달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인증·지정 제도 2가지를 모두 통과해 변함없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을 필두로 임산부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연달아 수상하고, 글로벌 의료관광 행사에서 '올해의 국제안과병원'으로 선정

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차근차근 쌓아온 우수한 실력과 따뜻한 마음을 모두 인정받은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이는 모두 우리 병원에게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들 덕분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경자년, 하얀 쥐띠의 해입니다. 하얀 쥐는 '우두머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이 안과전문병원의 하얀 쥐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불편한 점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2020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쥐는 십이지신의 맨 앞에 있는 동물입니다. 십이지신의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 '동물의 발가락 수' 설을 소개합니다. 음양 사상에 따라 홀수 발가락과 짝수 발가락을 가진 동물이 번갈아 가며 나오도록 배치됐다는 설입니다. 십이지신 중에서도 쥐는 앞발은 네 발가락, 뒷발은 다섯 발가락으로 음양을 모두 갖춘 영험한 동물로 여겨져 가장 맨앞에 오게 됐다고 합니다.

**'하얀 쥐'가
왜 우두머리를
상징할까요?**



새로운 경자(庚子)의 해가 밝았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시무식

- 2020년 1월 2일, 경자년 새해를 맞아 병원 10층 한길홀에서 시무식을 열었습니다. 손준홍 병원장은 신년사를 전하며 한 해의 비전을 공유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참석한 직원들은 새로운 기분으로 더욱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전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승진 및 임명자의 인사발령을 공식으로 발표하고,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새해 아침 흰자리에 모인 직원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우렁찬 박수로 2020년을 희망차게 열었습니다.



20/20 Vision

- 미국에는 '20/20 Vision'이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좋은 눈, 완벽한 시력을 의미하는데요, 병원에서 시력 검사를 받는 사람과 시력 검사표 사이의 거리가 통상 20피트(약 6.1m)인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시력, 즉 선명한 시야라는 이미에서 통찰력, 예지력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안과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병원이 2020년을 맞이하는 마음은 조금 더 특별하고 애틋합니다. 한길안과병원 개원 35주년이기도 한 2020년. 올해도 안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안과전문병원의 위상을 높이다!

IMTJ SUMMIT MEDICAL TRAVEL AWARDS 2019 '올해의 국제안과병원' 수상



- 우리 병원이 유럽에서 열린 국제적인 의료관광 행사에서 '올해의 국제안과병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019년 12월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Medical Travel awards 2019'에서 수상했는데, 국내 병원 가운데 이 행사에서 수상한 병원을 한길안과병원이 유일합니다. 이 행사는 의료관광 분야에서 잘 알려진 영국의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IMTJ)'이 매년 주최하는 'IMTJ summit'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작년에는

전 세계 40개국, 250여 명의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의료·웰니스 부문 중 '올해의 국제안과병원' 최종후보에 올랐으며,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무어필드 안과병원(UAE)과 프린스 안과병원(말레이시아)을 제치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수상을 원동력 삼아 '세계 속의 글로벌 안과전문병원'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의료의 질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길재단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우리 병원과 자매기관인 한길재단 역시 10월 10일 뜻깊은 상을 받았습니다. 한길재단은 우리 병원의 설립자인 정규형 박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수술비 지원과 저소득 가정 학생의 장학 사업을 위해 2008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현재까지 179명의 환자와 340명의 학생들에게 의료비 및 장학금 지원 등 10년 이상 나눔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길안과병원과 한길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며 물질적 지원은 물론 희망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14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2019년 10월 10일 우리 병원이 '임산부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내 의료기관 최초 난임휴가제도 도입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 100% 지원 ▲시차출근제 ▲희망휴직제 등 임산부 직원을 위한 다양한 편의제도를 마련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 병원은 2006년부터 난임휴가제(구 불임휴가제)를 시행 중입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나도 임신을 하지 못한 기혼 여직원이 대상이며 1회 60일씩, 1년에 2회, 재직 종 총 3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 중에는 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이는 현재 법으로 보장하는 난임치료 휴가(3일)과 임금 보전(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을 월씬 웃도는 지원 폭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15개월의 출산·육아휴직을 제공하고 희망자의 복귀를 100% 지원하여 이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1회성 지원이 아니므로 재직 중이면 첫



째 아이뿐 아니라 둘째, 셋째 때도 원하는 시기에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위해 시차출근제와 희망휴직제를 운영합니다. '행복한 일터 조성'은 우리 병원의 핵심가치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한안과전문병원회 2019 1차 세미나 성료

대한안과전문병원회는 2019년 5월

설립된 협회로 전국 안과전문병원

9곳 중 전공의 수련병원인 8곳

(김안과병원, 누네안과병원-

서울·대구, 새빛안과병원,

성모안과병원, 실로암안과병원,

제일안과병원, 한길안과병원)으로

구성됐습니다.



- 작년 11월 30일, 대한안과전문병원회가 서울 김안과병원 명곡홀에서 '2019 1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안과전문병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공의 양성기관으로서 교육의 질 향상 방안, 상호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세미나는 회원 병원 의료진, 간호사, 행정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1부에서는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정규형 회장(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이 '전문병원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하경 상근심사위원이 '안과전문병원에서의 보험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2부는 안과학, 간호, 검사, 행정 4

개 분야로 나뉘어 분야별 현안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3주기 의료기관 인증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효율적인 검사실 운영 방안, 의료회송제도, 의료분쟁 처리절차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안과전문병원들은 이번 세미나를 빌려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민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을 대표하는 안과전문병원으로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함께 성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100점 만점, A등급 획득!



우리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를 24시간 전담해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간병 부담은 줄이고, 의료 질은 높여 '환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 병원은 성과평가에서 총 3개 영역(공공성, 구조, 과정)의 5개 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간호인력의 근무만족도 향상'과 '안전한 고품질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자 부담은 덜고 보험혜택은 넓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운영

우리 병원이 2020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기본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가 제공하는 수술이나 시술 등을 별도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보험을 적용할 수 있어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2019 환자안전주간행사, 제8회 QI경진대회 개최

- 지난해 10월 23~24일 이틀간 적정진료관리 실이 환자안전주간행사를 열었습니다. 23일에는 병원장과 함께 병원 전총을 돌아보며 환자 안전을 위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환자 안전 OX 퀴즈>를 통해 직원들이 환자 안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정답을 맞힌 직원에게는 소정의 간식을 선물했는데, 많은 직원들이 맛있는 간식을 얻는 소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24일에는 전 직원이 모여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 실천 서약'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사항인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 달여간 진행한 <2019 손위생 작품 콘테스트>의 시상도 함께했습니다. 진단검사의학팀, 영상의학팀, 영양팀이 연합한 '손위생, 환자안전을 위한 우리의 맹세!'가 1등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전 직원의 손바닥을 활용해 손위생을 1909년 독립운동을 위한 안중근 의사의 맹세에 빗대 표현한 작품입니다.
2등은 병동팀의 '한길인이라면 손 씻기부터! 솔선

先수手범 캠페인'입니다. 언어유희를 재치있게 활용했습니다. 3등은 수술팀의 '손 위생, 어디까지 해봤니?'와 기획실의 '한길 인사이드'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한 달 뒤인 11월 21일에는 '제8회 한길안과병원 QI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무팀, 영양팀, 진단검사·영상의학팀 등 6개 부서가 참여했습니다. 《혈력기관 의뢰환자의 회신율 및 되의뢰율 향상 방안》, 《피급식자 고객만족도 향상》, 《낙상 예방 활동을 통한 직원 인식 강화》, 《시력 검사의 표준화》 등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 진행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이 중 《안전한 주사 시행을 위한 질 향상 활동》을 발표한 간호부 외래2파트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상인 적정진료관리실장은 "각 부서에 필요한 QI 활동을 잘 찾아서 수행해 주었다"며 잘한 점은 칭찬하고 아쉬운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독려했습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은 의료기관이 추구해야 하는 최우선 사명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결같이 정진하겠습니다.



전성연 전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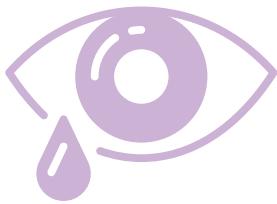
한국콘택트렌즈학회 포스터상 수상

우리 병원 전성연 전공의(2년차)가 지난 11월 개최된 제112회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콘택트렌즈 부문 구연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성연 전공의가 발표한 주제는 '원추각막이 있는 눈에서 공막콘택트렌즈 착용의 임상 결과'입니다.

변지윤 전공의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인 우리 병원은 지난해 12월, 1년차 레지던트(전공의)로 변지윤 선생을 선발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마친 변지윤 선생은 3월부터 우리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합니다. 우수한 실력과 따뜻한 마음을 겸비한 안과전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황반원공과 망막열공

눈 안쪽에 위치하는 망막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중심부에 구멍이 나면

'황반원공', 주변부에 생기면
'망막열공'이라고 부릅니다.
황반원공이 발생하면 시력이
저하되고 망막열공은 망막박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말

망막센터
이정희 진료과장



눈에도 구멍이 생기나요?!

망막 중심에 구멍이 생기는 황반원공

- 흔히 망막을 카메라의 필름에 비유합니다. 필름 가운데에 구멍이 생기면 제대로 촬영이 되지 않듯 황반원공이 생기면 사물이 휘어지거나 찌그러져 보이고 중심시력이 떨어집니다. 보통 한쪽 눈의 시력이 떨어져도 다른 쪽 눈이 보완해 주기 때문에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쪽 눈을 가리고 격자무늬나 선이 반듯하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황반원공은 레이저로는 치료할 수 없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황반원공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는지, 시력이나 원공의 크기 등에 따라 수술 후 예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정밀검사를 통해 환자의 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막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사람, 눈 수술을 했던 사람에게도 발병하기 쉽습니다.

열공이 생기는 과정에서 망막혈관이 손상되면 유리체 내에 출혈이 생겨 비문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멍이 생긴 틈 사이로 액화된 유리체가 들어가 망막박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망막박리는 망막열공에 의해 생깁니다. 망막박리 환자 중에는 눈앞에 작은 물체가 떠다니거나(비문증), 갑자기 빛이 번쩍이는(섬광증) 증상을 함께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망막열공은 빨리 발견하고, 망막박리를 동반하지 않으면 수술 없이 간단한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열공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열공을 통해 액체가 들어가서 망막박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부를 레이저로 응고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번 생긴 구멍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다른 부위에 새로운 열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황반원공과 망막열공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때문에 환자가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안과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한쪽 눈을 가리고 시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경인일보 2019.9.4)

망막 주변부에 구멍이 생기는 망막열공

- 망막과 수정체 사이에는 투명한 젤리 같은 유리체가 있습니다. 평소 망막과 유리체는 서로 단단히 붙어서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빛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일부분의 망막에는 아직 유리체가 유�착되어 있는 경우 망막이 찢어지면서 열공이 발생합니다. 노화, 염증, 눈 외상, 고도근시 등 다양한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망막이 얇거나 망막이상의 가족력이

2019 친절직원

간호부 문경순 "수술 전 간호이사님의 기도를 받고 너무나 평온 한 마음으로 수술 받았 습니다. 하늘에서 천사 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 신애정님	외래1파트 하은해 "매사에 긍정의 힘이 넘 치고 좋은 감정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께 느끼고 돌아갑니다'" - 백인종님	외래1파트 최미선 "백내장 수술 상담을 받 을 때 자세하고 상냥하 게 설명해 주어서 마음 편하게 수술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 유부순님	외래1파트 김미리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 받을 때도 잘 도와주고, 처방 받은 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 해 주었습니다." - 이옥경님	외래2파트 김창희 "설명 좀 잘 알아듣지 못 해도 웃음을 잊지 않으 시고 시종일관 친부모님 대하듯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 구순섭님	외래2파트 이세란 "이세란 선생님의 친절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김주혜님	외래2파트 서혜진 "의학상식이 없는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 김진무님	외래2파트 양은아 "수술상담 시 무척 친절 하고 꼼꼼하고 성의 있 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 전묘재님	외래3파트 선원정 "선원정 선생님의 친절 에 감사드립니다!" - 김주혜님	병동팀 박영아 "백내장 수술 후 입원해 있는 동안 불편 없이 자지 낼 수 있도록 무척 친절하 게 도와주었습니다." - 남숙현님

아픈 눈뿐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우리 병원 친절직원

아픈 눈과 함께 이로 인해 불편한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우리 병원 친절직원을 소개합니다.
친절직원 및 사연은 각 층에 설치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모집했으며,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가 직접
추천해 주었습니다.



진료부
조범진 진료원장
추천인: 유부순 님

진료부
임태형 진료과장
(라식센터장)
추천인: 박기태 님

교육수련부
전성연 전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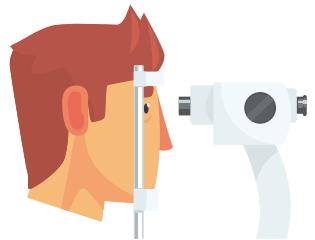
- 감사의 글!! 금년 10월 초에 "조범진 원장님"께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수술을 해야 해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원장님이 친절한 소견과 환자에 대한 마음으로 다가와 설명해 주셨기에 마음을 줄이면서도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었고, 수술을 받고 난 후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직접 받아보지 않고는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똑같은 경험을 하

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조범진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

● 한길안과병원 임태형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문이 많아도 다 일일이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수술을 잘해 주셔서 밤에도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항상 마음이 편합니다. 한길안과병원에서는 임태형 선생님께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씨 착하시고 좋은 약을 추천해 주셔서 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임태형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님'이라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올 정도로 정말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수술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선생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길안과병원에서 최고로 멋진 선생님이십니다. 오랫동안 한길안과병원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길안과병원 원장님은 꼭 임태형 선생님에게 잘해 주세요. 다른 대학병원, 안과전문병원 의료진보다 훨씬 실력이 좋은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시니까요~ 감사합니다.

● 최근 손준홍 원장님에게 맘막수술을 받았는데, 이전에 라식을 했던 눈이어서 그런지 상태가 불안정해서 보호렌즈를 끼고 퇴원했습니다. 이후



외래진료를 받으며 차츰 상태가 나아져서 드디어 렌즈를 뺀는데, 일요일에 갑자기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성연 선생님이 계셨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불안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7시에 진료를 봐 주며 와 아픈 건지 알려주고, 다시 보호렌즈를 끼워주었습니다. 손준홍 원장님에게 진료를 받은 뒤에도 전성연 선생님이 렌즈를 빼 주며 제가 물어보는 것 들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곧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여분 렌즈 구매방법도 물어봤는데 이 역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문을 열지 않은 이른 아침에도 아픈 환자 한 명을 위해 기꺼이 오라며 진료해 준 전성연 선생님에게 감동받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의사란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전성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성연 전공의의 추천 사연은 환자 분이 직접 손준홍 병원장에게 말씀하신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고객분들께 추천을 받았지만 소개하지 못했던 2019 친절직원도 함께 소개합니다

병동팀 김빛나 "따뜻하고 섬세한 말투와 친절하신 설명에 칭찬을 합니다. 입원하고 수술하는 동안 감사했 습니다!" - 유선열 님	검사1파트 박은정 "여러 질문을 했는데도 정말 너무나도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나누도 감사했 습니다!" - 김태성 님	검사1파트 박동경 "아이가 검사하면서 자꾸 눈을 깜빡였는데 한 번도 짙은 내색 없이 친절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영희 님	검사1파트 이은주 "제 순서가 늦춰 불편 했는데 일 처리를 빠르고 친절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봉진 님	검사2파트 이현진 "친절하고 설명도 정확히 해주시는 이현진 선생님, 칭찬 많이 해주세요"	검사2파트 김필선 "2층 3번방 길필선 선생님 너무 친절하셨어요." - 유연희 님	검사3파트 오택용 "친절한 말씨와 전문성 있는 검안 자세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 김민탁 님	검사3파트 김새리 "얼굴도 아름다우신데 친절한 말씨와 미소 인상!" - 백은주 님	원무팀 정유영 "많이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정유영 사원이 절 도와줘서 잘 진료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윤종자 님	주차관리팀 권영천 "주차장 직원들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특히 차 빼주신 권영한 선생님! 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친절함을 받으니 기분 이너무 좋았습니다." - 신애정 님

“중복 안과 질환을 단 하루에!”

안과와 관련된 모든 질환을 단 하루에 진료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실력파 의료진의 눈 질환 완벽 케어”

대학병원에 견줄 만큼 우수한 33명의 의료진이 안과 전 분야 특화 진료를 제공합니다.

“믿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

보건복지부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고가의 다양한 첨단 의료장비”

220여 개의 전문 안과 장비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료합니다.

“멀리 해외까지 입소문 난 병원”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의료서비스로 세계와 경쟁합니다.

WWW.HANGLEYE.CO.KR

진료안내

대표전화: 1577-7117

기타안내: 032) 503-3322

라식센터: 032) 529-1001

평일진료: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 점심시간(12:30~13:30)을 피해서 오시면
진료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언론에 비친 한길안과병원

연합뉴스 하우투 -

겨울에 심해지는 안구건조증,
효과적인 치료법은?
임태형 진료과장 인터뷰
2019.11.22.

헬스조선 명의톡톡 -

백내장은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최기용 진료원장 인터뷰
2019.12.2.

유튜브 의학채널 '비온뒤'

인천LIVE “백내장”
조범진 진료원장 인터뷰
2019.12.5.

TBN 도로교통공단 경인교통방송

스튜디오 1005
“눈물흘림증과 안구건조증”
김성철 진료과장 인터뷰
2019.12.19.

한국일보 외 1개 매체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 위해 올인…
광저우 등 현지 설명회와 협약식
국제진료팀 중국 의료관광설명회

및 B2B 참여

2019.9.26.

간호신문

환자안전, 전 직원이 함께 행동해야
박지현 적정진료파트장 기고문 게재
2019.10.3.

조선일보, KBS 외 21개 매체

한길안과병원, 제14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2019.10.10.

인천일보 외 7개 매체

한길재단,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19.10.10.

한국경제TV 외 21개 매체

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캄보디아 해외의료지원 실시
2019.10.16.

의학신문, 후생신보

카자흐스탄 어린이 사시 수술 지원
2019.10.25.

의학신문 외 3개 매체

한길안과병원, 중국관광객 대상
인천항 릴레이 메디컬 이벤트 성료
2019.10.31.

의협신문 외 3개 매체

대한안과전문병원회, 첫 세미나
2019.12.2.

후생신보 외 4개 매체

한길안과병원, 한국 안과전문병원
위상 제고 '앞장'
IMTJ 올해의 국제안과 병원 수상
2019.12.5.

인천뉴스 외 11개 매체

인천 선진 의료기술에
러시아이르쿠츠크시도 ‘엄지척’
러시아이르쿠츠크시 보건국 팬투어
2019.12.12.

의학신문, 후생신보

한길안과병원 박종민 국제진료팀장
인천광역시장 표창
2019.12.23.

의학신문

[신년특집] 전문병원제도 활성화 방안
정규형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회장
(한길안과병원 이사장) 인터뷰
2020.1.1.

